

서울시 IT 산업의 특징

IT산업은 왜 부각되는가?

- IT(Information Technology)산업은 "정보산업 중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생산·가공·유통·판매를 맡은 산업"을 의미함
- IT산업은 경제의 소프트화를 촉진하고 네트워크 외부성, 연결의 경제성(economy of linkage)을 유도해 제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소프트웨어 부문을 확장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반산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
- IT산업은 IT 제조업(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, 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), IT 유통업(장비관련 도·소매, 임대업), IT 통신업(유·무선, 전기통신업), IT 서비스업(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, 자료처리업 등)으로 구성되어 있음

IT산업의 동향

- 서울시 IT산업의 구조는 요소투입 중심의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의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
 - 서울시 IT산업('91~'01년)의 사업체는 19,263개에서 29,321개로 52.2%, 종사자는 229,046명에서 303,494명으로 32.5% 증가함
 - IT산업 중 관련 제조업의 비중은 사업체, 종사자 모두 점진적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IT관련 통신업과 서비스업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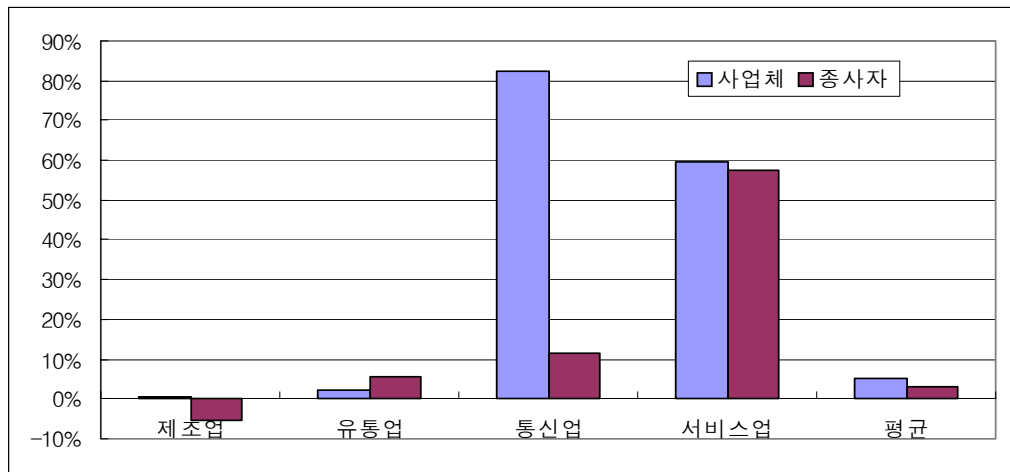
[표] 서울 IT산업의 업종별 현황 및 비중 추이 (단위: 개, 명, %)

구 분	1991		2001	
	사업체	종사자	사업체	종사자
제조업	3,041(15.8)	137,243(59.9)	3,149(10.7)	64,592(21.3)
유통업	15,215(79.0)	57,032(24.9)	18,933(64.6)	80,319(29.4)
통신업	96(0.5)	18,524(8.1)	889(3.0)	40,145(13.2)
서비스업	911(4.7)	16,247(7.1)	6,350(21.7)	79,594(36.1)
전 체	19,263(100)	229,046(100)	29,321(100)	303,494(100)

자료: 통계청, 「총사업체통계조사 보고서」, 1992년; 서울시, 「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」, 2002년

○ IT 서비스·통신업이 서울시 IT산업의 성장엔진으로 작용

- 서울시 IT산업의 '91~'01년간 연평균성장률은 사업체기준 5.2%, 종사자기준 3.3%인데, 이는 서울시 전체 산업의 연평균성장률 2.5%(사업체), 0.7%(종사자)에 비해 높은 수치임



자료: 통계청, 「총사업체통계조사 보고서」, 1992년; 서울시, 「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」, 2002년

[그림] 서울시 IT산업의 업종별 연평균 성장률('91~'0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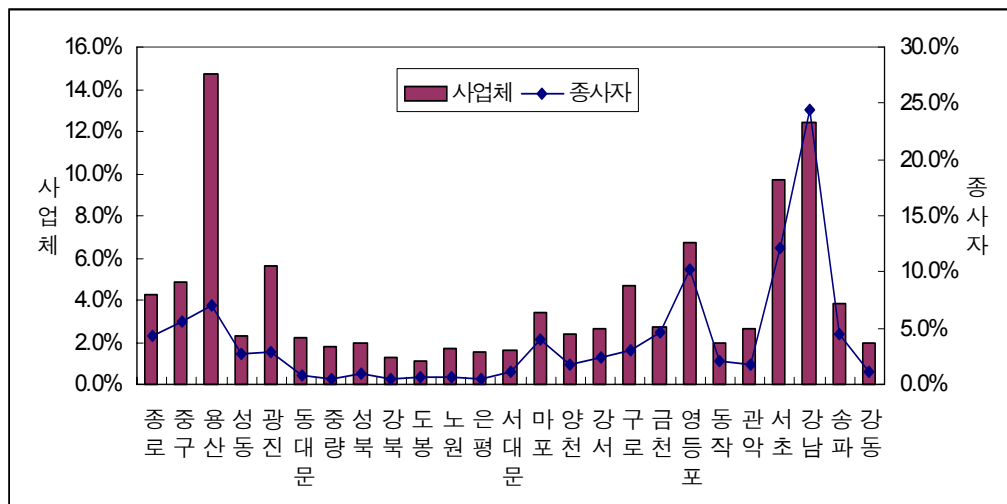
- 세부 산업별로 분석하면 '91~'01년간 IT관련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사업체와 종사자가 각각 59.7%, 57.4%, IT관련 통신업이 각각 82.6%, 11.7%의 성장률을 보여 서울시 IT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

으며 IT관련 제조업은 각각 0.4%, -5.3%로 감소추세를 보임

- 한편, IT산업의 평균종사자 규모('94년 8.1명, '01년 10.4명)는 IT산업을 제외한 서울시 전산업의 평균규모('94년 5.4명, '01년 5.1명)를 상회하여 IT산업의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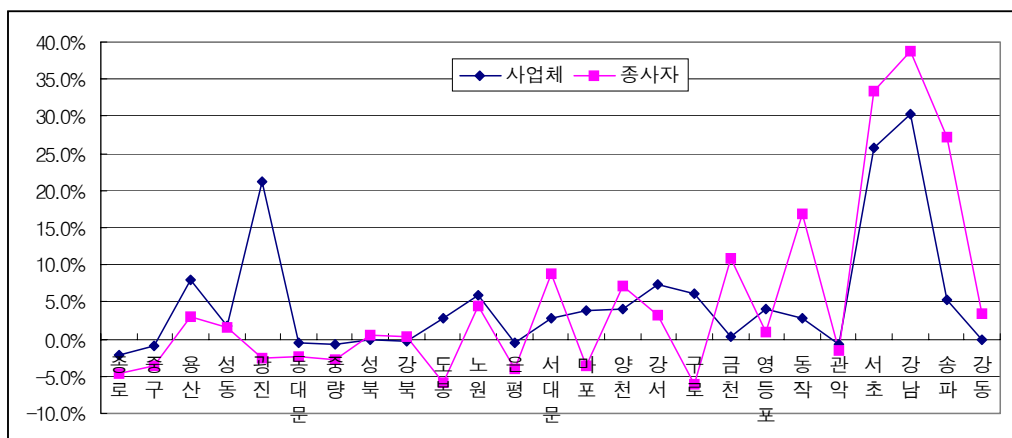
서울시 IT산업의 공간적 특성 : 강북 정체, 강남 약진

- IT산업의 공간적 특성은 집적화, 선도지역의 등장, 도심지역의 쇠퇴로 요약할 수 있음
- 2001년 서울의 IT산업은 상위 5개구(강남·서초, 영등포, 용산, 중구)에 사업체의 49.2%, 종사자의 53.8%가 집중하여 소수지역으로 집적화
- '테헤란로'를 중심으로 하는 강남·서초지역은 '91~'01년간 IT산업이 연평균 28.1%(사업체), 36.9%(종사자)의 성장을 보여 IT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부각
- 도심지역은 '91년 서울 IT산업의 수위에서 '01년 4위로 추락함



[그림] 서울시 지역별 사업체 및 종사자 분포(2001)

- '91~'01년간 서울의 IT산업은 공간적으로 볼 때 강북지역의 정체와 강남지역의 급성장으로 특징지어짐
 - '91년 기준 서울시 IT산업은 용산(12.4%), 종로(8.3%), 중구(8.2%) 순이었으나, '01년 용산(14.7%), 강남(12.4%), 서초(9.7%) 순으로 바뀌어 강남지역이 상위그룹을 구성(사업체 기준)
 - 전체적으로 도심의 비중은 작아지고 있는 가운데 90년대 중반 이후 강남지역, 영등포가 새로운 입지장소로 부상하였으며, 용산구의 경우 지속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음
 -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용산구 등이 유통부문의 집적으로 인한 결과임을 고려할 때, 강남·서초구가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술집약적 IT서비스업의 중추적 지역으로의 위상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됨



[그림] 서울시 구별 사업체 및 종사자 연평균 성장률(%) 분포('91~'01)

주요 지역별 특성

- 도심지역(종로·중구)의 서울 IT산업대비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
 - 도심지역 오피스공간의 포화로 신생기업의 진입이 제약받고 있으며,

IT 산업의 물적기반인 신규오피스 공급 등을 통해 강남지역이 상대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

- '91~'01년간 IT 제조업은 27,096명, IT 유통업은 2,909명이 감소하여 도심지역의 비중감소를 주도함
- 전체 IT산업의 경우, 도심지역은 '91년 서울 중 종사자(21.9%), 사업체(16.5%) 모두 수위를 차지했으나 '01년에는 종사자(9.9%), 사업체(9.1%) 모두 4위로 하락함
- 2001년 현재 IT 유통업이 지역 IT 사업체의 75.3%, 종사자의 30.0%를 차지하여 수위이나 서울 IT 유통업 대비 비중은 10%수준으로 미미한 반면 통신업 종사자는 서울 IT 통신업 종사자의 23.5%를 차지하고 있음

[표] 도심지역의 서울 대비 IT산업의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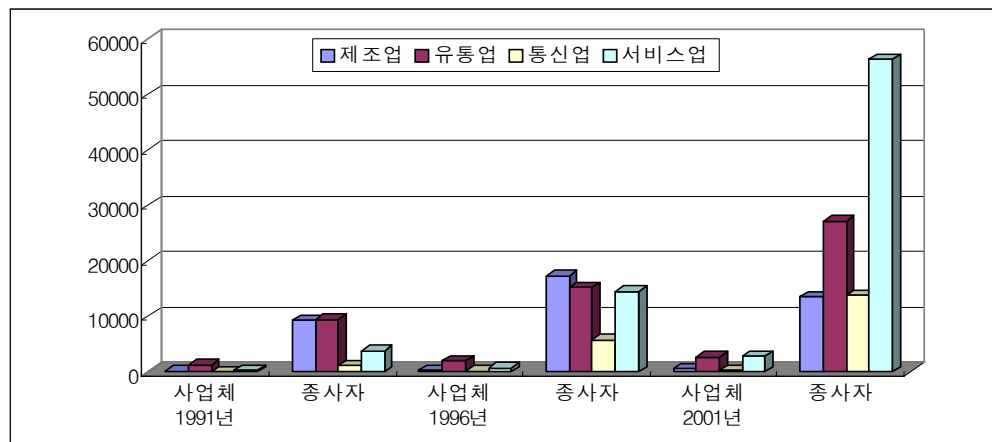
(단위: 개, 명, %)

구 분	1991		2001	
	사업체	종사자	사업체	종사자
제조업	223(7.7)	30,320(22.1)	166(5.3)	3,224(5.0)
유통업	2,772(18.2)	11,948(20.9)	2,020(10.7)	9,039(10.1)
통신업	14(14.6)	4,616(24.9)	93(10.5)	9,421(23.5)
서비스업	153(16.8)	3,231(19.9)	402(6.3)	8,402(7.7)
계	3,172(16.5)	50,115(21.9)	2,681(9.1)	30,086(9.9)

자료: 통계청, 「총사업체통계조사 보고서」, 1992년; 서울시, 「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」, 1997, 2002년

- 기술적 요소가 강한 서비스업은 강남지역에 비해 열세를 보이나 도심지역은 인쇄·출판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, 문화산업(공연·문화·예술)의 멀티미디어화를 통해 디지털컨텐츠 산업화, 청계천 개발을 통해 금융지역으로 성장할 경우 금융관련 IT서비스의 수요증가가 예상됨

- 강남지역(강남·서초구)은 IT 제조업을 제외한 IT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성장세를 보이며 IT 서비스업과 IT 통신업에 특화
 - 90년 이후 강남지역의 신규오피스의 공급확대는 사업서비스업체와 기업본사의 유입을 촉진하고, 이들 기업에게 IT 관련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IT관련 업체가 '테헤란로'를 중심으로 집적하여 IT산업의 메카로 성장했음
 - '91~'01년간 IT 서비스업이 52,602명, IT 유통업이 17,831명이 증가하여 강남지역의 성장을 주도함
 - 서울시 IT산업 대비 강남·서초지역 IT산업의 비중은 '91년 8.8%(사업체), 10.3%(종사자)에서 '01년 22.1%(사업체), 36.6%(종사자)로 각각 13.3%포인트, 26.3%포인트 증가했음
 - 2001년 현재 IT 서비스업이 지역 IT관련 사업체의 43.6%, 종사자의 50.8%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IT 유통업이 각각 42.6%와 24.5%를 점유함
 - IT 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과 컴퓨터관련 벤처기업의 지속적 집적현상으로 '91~'01년간 연평균 101.3%(사업체), 139.4%(종사자) 증가하여 2001년 서울시 IT 서비스업의 각각 44.5%(2,826개)와 51.5%(56,375명)를 차지함
 - 유통업 또한 사업체수에서는 용산구에 뒤지나 종사자수에서는 역전하여 유통업의 집적지역으로 부각됨. 이외에도 IT 통신업도 특화되어 2001년 서울시 IT 통신업 사업체수의 38.9%(346개), 종사자의 34.4%(13,806명)를 차지함.
-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 IT산업의 침체는 강남지역에도 영향을 주어 한계기업의 퇴출 등 지역 IT산업 구조조정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향후 한국 IT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됨



자료: 통계청, 「총사업체통계조사 보고서」, 1992년; 서울시, 「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」, 1995~2002

[그림] 강남지역 IT산업의 업종별 사업체 및 종사자의 현황

- 여의도지역은 유통업을 제외한 전 IT산업에 걸쳐 강남·서초지역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함
 - 여의도 지역은 정보관련서비스의 수요가 높은 금융·증권산업이 발달하여 IT 서비스업과 IT 통신업이 발달함
 - '91~01'년간 IT 서비스업이 10,520명, 유통업 1,359명, 통신업 941명 증가하였으나, 제조업 종사자는 9,924명 감소함
 - 서울시 IT산업 대비 여의도지역 IT산업의 비중은 '91년 7.3%(사업체), 12.3%(종사자)에서 '01년 6.7%(사업체), 10.2%(종사자)로 두 항목 모두 소폭 하락세를 보임
 - 2001년 현재 IT 서비스업이 지역 IT 사업체의 34.5%, 종사자의 44.6%를 점유하며, 서울 IT 서비스업 대비 비중도 각각 10.7%와 12.6%로 강남지역에 이어 2위를 차지함. IT 유통업은 지역IT 관련사업체의 51.1%, 종사자의 22.2%를 점유함
- 용산구는 IT 유통업으로 특화되어 있음
 - 기업·금융본사가 집적해 IT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도심과 여의도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80년 중반 농수산물시장이 가락동으로 이전하

였고 그 자리에 용산전자상가가 입지한 이후부터 IT 유통업의 중심지로 부각됨.

- '91~'01년간 용산구는 IT유통업 종사자가 7,703명, IT서비스업이 310명 증가하였으나, IT제조업과 IT통신업은 각각 1,037명, 2,115명 감소
- 서울시 IT산업 대비 용산구 IT산업의 비중은 '91년 12.4%(사업체), 7.2%(종사자)에서 '01년 각각 14.7%와 7.0%로 사업체의 비중이 약간 증가함
- 2001년 현재 IT 유통업이 지역 IT관련 사업체의 92.8%, 종사자의 74.7%를 점유하여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IT관련 서비스업이 각각 4.9%와 11.6%를 점유함
- 서울 IT 유통업 대비 용산구 IT 유통업의 비중이 '91년 14.2%(사업체), 14.4%(종사자)에서 '01년 각각 21.1%, 17.8%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IT산업의 서울 대비 비중은 5% 미만이며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

[표] 용산구 IT관련 유통업의 추이

(단위: 개, 명)

구 분	1991년		1996년		2001년	
	사업체	종사자	사업체	종사자	사업체	종사자
용산	2,167	8,212	3,446	13,702	3,996	15,915
서울	15,215	57,032	17,702	71,900	18,933	89,319
비중	14.24	14.39	19.46	19.05	21.10	17.81

- IT 유통업은 기술적 측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하지만 IT산업의 최종생산물을 공간적으로 확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여 잠재적으로 IT산업의 성장을 견인함

이한일 ·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